

# 학부제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이정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 1. 학부제의 추진배경

현재의 대학교육은 과거와 비교하여 대학생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소수정예를 위한 엘리트교육이 아니라, 다수를 대상으로하는 양산교육을 하고 있으며 공학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고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전문교육 보다는 공학적인 사고와 응용에 기초를 둔 공학적인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국가경쟁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기술수준의 심각성을 지적 하였으며,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과대학의 교육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수한 기술인력을 많이 배출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공과대학이 다가오는 교육개방에 대처하여 무한경쟁에서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현재의 대학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공과대학의 현실을 살펴보면

1) 학과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학과의 특성이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입시생과 학부모에게 학과선택의

어려움을 더 해주며,

2) 교과과정 편성시에 유사과목이나 비정상적인 교과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상적인 교과과정의 편성이 어려울 때가 많고,

3) 실험실을 포함하여 실험기자재는 학과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시설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어렵고,

4) 학과중심으로 시간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으며,

5) 대학원 진학시 전공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하게 세분화된 학과와 유사학과의 통합과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과거에 21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었던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대학차원에서 공식적논의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총장과 학장 사이에 학과개편 문제를 논의하여 왔는데, 1992학년도에 서울대학교가 전기·전자·제어공학과군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계기로 1992년도 후반기부터 계열별로 학과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1994학년도에 건축계열과 기계계열의 5개 학과를 2개 학과로 통합 개편하였고, 1995학년도에는 다시 12개 학과를 1공학부 4학과군으로 통합하였으며, 1995년 3월 1일부터는 교육법 시행령에 학부를 둘 수 있는 학과통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교육부의 “대학원 중점육성지원대학 선정 계획(1995.7.5과 7.11)”에 따라 한양대학교도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다시 한번 학과통합을 결정하여 199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과대학은 1공학부, 3학과군, 6개 학과를 모집하기로 확정하였다.

한편 학과개편에 대한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와 비슷한 실정인 일본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일본 문부성의 주도 아래 공과대학 학과의 통합개편을 과감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일부 대학에서 학과통합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은 공과대학에 10개 내외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학과통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의 학과개편 추진과정과 그 동안에 발생했던 여러가지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과제들을 말씀드림으로써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실시 예정인 대학들에게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2. 학부제 추진과정

### 2.1 학과개편의 기본구상

학과개편에 대한 논의단계를 벗어나서

본격적인 작업이 착수된 것은 계열통합 연구위원회(1992.12.7)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통합대상학과는 표 1과 같이 5개 계열로 분류하였으며, 연구위원은 각 학과별로 교수 2명씩을 위촉하였다.

계열통합연구위원회는 계열별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열화에 관한 제반 문제를 연구 검토하여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계열별로 연구비 2백만원씩지급). 이에 따라 제출된 연구보고서(1993.7)의 결론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토목, 건축계열

- 통합방안 : 건축공학과와 건축공과는 통합하고, 토목공학과와 도시공학과는 종전대로 두는 부분통합안
- 학 과 명 : 건축공학과
- 요구사항 : 4개 전공계열 설치
  - ① 건축계획 계열
  - ② 건축환경 및 설비 계열
  - ③ 건축 구조계열

#### 2) 전기, 전자계열

- 통합방안 : 전자공학과와 전자통신공학과 및 전파공학과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전기공학과는 제외하는 부분통합

#### 3) 금속, 재료계열

- 통합방안

#### 4) 기계계열

- 통합방안 : 완전통합

표 1. 계열통합대상학과

계 열	관 련 학 과
토목, 건축계열	토목공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전기, 전자계열	전기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금속, 재료계열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과
기계계열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정밀기계공학과
화공계열	화학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섬유공학과 공업화학과

비고 : 전과공학과와 자동차공학과는 원칙적으로는 계열통합 대상학과이지만 학과의 설립취지가 특수했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 학 과 명 : 기계공학부
  - 학과별 입장 : ① 통합에는 찬성 하지만 기계공학과와 기계설계학과는 부분 통합이나 전공 모듈을 갖는 통합은 반대  
② 정밀기계공학과는 전공모듈과 정원을 통합에 찬성
  - 요구사항 : 졸업이수학점 150점
  - 개설학점 175 - 180학점
- 5) 화공계열
- 통합방안 : 제1안 화학공학과와 공업화학과를 부분통합하고 섬유공학과와 무기재료공학과는 존속시킴  
제2안 화공계열 학과를 공학부로 두고, 현재의 학과단위로 운영하는 형식적인 통합
  - 학 과 명 : 제1안 공화/화공 같은 나열식

제2안 추후결정

- 요구사항 : 제1안 세부전공 설정  
공업화학 전공, 화학공학 전공

- 졸업학점 160학점
- 개설학점 190학점

이상에서 알수있는 바와 같이 계열에 따라 또는 학과별 입장에 따라 통합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연구보고를 기준으로 학과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였으며, 동시에 학과통합에 따른 많은 건의사항과 문제점이 제시 되었다.

- 장 점 -

- 1) 전공 및 선택과목의 다양화
- 2) 공통과목의 효율적인 교육
- 3)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의 공동이용
- 4) 교수간 또는 전공분야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연구 가능성 증대
- 5) 연구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
- 6) 교수의 강의부담 경감

- 7) 강의교수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짐
- 8)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수급에 적절히 대처 가능

- 문제점 -

- 1) 인기전문분야로 학생들이 집중 편중화
- 2) 특수과목의 사장화(폐강 등)
- 3) 기존의 학과와 산업체 (또는 관련단체)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 짐
- 4) 수강학생의 수가 많아질 우려가 있어서 교육성과의 질적 저하
- 5) 행정단위 (부 또는 과)의 규모가 방대해짐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이 경직될 우려가 있음.
- (6) 학생수가 방대해짐으로써 학생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7) 전공별 균형발전의 저해

- 건의사항 -

- 1) 책임강의시간 인하 (6학점)
- 2) 졸업학점의 상향조정 (150-

표 2. 건축계열과 기계계열의 개편내역(1994년도 시행)

계열	관련학과	통합학과명	이수학점 /개설학점	전공 유, 무	비고
건축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150)* / 189		
기계	기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공학과	140 / 161	기계공학전공 정밀기계전공 기계설계전공	전공별로 별도 교과과정 개설

\* 건축공학과(통합후)가 요청한 학점임.

- 160학점)
- 3) 분반강의 (50명/반)
- 4) 최소 수강인원 하향조정 (10명/과목)
- 5) 조교 및 실험기사의 확충
- 6) 설강과목의 확대 (180-190학점/계열)
- 7) 논문지도시간 인정 (한학기 3시간/주당)
- 8) 졸업논문의 학점인정 (한학기 3학점)

### 2.2 1단계 학과 개편

공과대학은 제출된 계열별 연구보고서와 그 후에 열린 교수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학과통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부터 점차 단계

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먼저 1단계로 건축계열학과와 기계계열학과를 통합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대학본부와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공과대학을 21개 학과에서 18개 학과로 개편하였다(표2 참조).

### 2.3 2단계 학과개편

다음 3절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1단계 학과개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학과의 교수, 학생, 동문, 학부 모듈의 이해부족, 비협조, 학과이기주의 및 대화부족 등으로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더 이상의 학과개편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표 3. 2단계 학과개편 내역(1995학년도 시행)

관련학과	개편학과명	영문표기명
건축공학과	건축공학부	School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전자·전자통신·전파공학과군	School of Electronics, Communications and Radio Engineering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과	재료·금속공학과군	School of Materials and Metallurgical Engineering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기계·정밀기계·기계설치·자동차공학과군	School of Mechanical, Precision, Design and Automotive Engineering
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공업화학과	화학공학·공업화학·섬유·세라믹공학과군	School of Chemical Engineering, Industrial Chemistry, Textile and Ceramic Engineering

\* 토목, 도시, 전기, 자원, 원자 및 산업공학과는 종전과 변동 없음.

그러나 그 후 학과개편에 관하여 대학 본부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근거로 하여 공과대학은 다시 한번 2단계 학과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1994년 6월 15~16일 양일간에 걸쳐 “계열화통합연구결과 공청회”(건축·토목계열, 전기·전자계열, 금속·재료계열, 기계계열 및 화공계열)를 개최하는 한편, 계열학과의 학과장을 비롯한 교수들과의 개별적인 면담과 설득을 통하여 통합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를 얻었으며, 1994년 9월에 공과대학은 1공학부, 4공학과군, 6개 학과로 학과개편안을 확정하였다(표 3 참조).

### 2.4 3단계 학과개편

1995학년도에 접어들면서 전국 각 대학은 학부제로의 학제개편이 전국적인 대학의 현안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느 누구도 대세를 거슬러서 반대하기는 어

려운 상황으로 바뀌었다. 또한 1995년 3월 1일부터 학부설치를 허용하는 개정된 교육법시행령과 교육부의 “대학원 중점육성지원대학 선정 계획”이 촉진제가 되어 공과대학은 1996학년도부터 시행되는 3단계 학과개편은 별다른 잡음없이 조용히 추진되어 공과대학은 1공학부, 3학과군, 6개 학과로 개편하였다(표 4 참조).

## 3. 학부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

### 3.1 1단계 추진과정상의 문제

지금까지 대학은 학과신설이나 단과대학신설만 해온 상태에서 학과통합은 전례가 없었고, 이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기본방향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학과통합 추진방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공과대학은 자체적으로 학과통합안을 마련하였으나 사실은 결보기 만의 통합이었다. 다시 말하면 계열에 따

표 4. 3단계 학과개편 내역(1996학년도 시행)

관련학과(군)	학 부 명	비 고
재료·금속공학과군 화학공학·공업화학·섬유·세라믹공학과군	화학공·공업화학·섬유·세라믹·재료·금속공학과군	공과대학* (서울캠퍼스)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전자·컴퓨터·전기·제어공학부	공학대학 (안산캠퍼스)

\* 이 외의 학과군(부)과 학과는 표 3의 내용과 같음.

라 원칙적으로 통합에 동의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통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이나 학과운영방법, 전공설치여부 및 교수의 담당과목, 교수층 원분야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통합추진과정에서 많은 험난한 과정을 겪었다.

공과대학의 경우에 물론 대학본부와 사전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본부가 아닌 대학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학과통합과 관련된 학칙개정, 행정사무, 학사와 복학생문제 등은 대학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특히 기계계열의 통합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운 사례들을 몇가지로 정리하였다.

### 3.1.1 학과명칭

건축계열은 학과명칭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기계계열은 학과명칭을 기계공학과로 하면 정밀기계공학과와 기계설계학과가 흡수통합된다는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기계공학부”라는 이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육부의 승인과정에서 학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벽에 부딪혀서, 학과명은 기계공학과로 하는 대신 입시요강에 전공을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 3.1.2 전공설치

기계계열에서는 전공설치에 있어서도 학과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엄격한 전공분리와 전공별 정원을 주

장하는 의견과 일단 기계계열이 통합된 이상 전공 분야를 제시해 주고 고학년(3학년이나 4학년)에서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전공을 명시해 줄 수도 있는 다소 신축성 있는 방안으로 나누어져 견해차를 좁힐 수가 없었다.

전공설치 문제는 입시요강 발표를 앞두고 서둘러 입시요강에 정원을 두지 않고 전공을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3.1.3 통합 반대운동

학과통합이 결정된 이후 기계계열의 일부학과에서 학생회, 동문 및 학부모가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통합에 반대하였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통합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학과의 특성을 강조한다거나 그 학과의 주장만을 수용하라는 학과 이기주의, 학과 동문회의 연속성문제 또는 학부모들의 무조건적 반대 등이 주된 사항이었다.

이들의 반대운동 중에는 대차보이용, 수업거부, 학생비상총회, 수시로 면담요청, 터무니 없는 요구사항, 통합반대 전화 걸기, 동문들의 학교방문면담 등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가 합동으로 총장실을 점거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공과대학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학교의 결정대로 추진하여 나갔다.

### 3.1.4 교수들의 협조문제

학과통합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교수의 몫이다.

교수가 통합을 결정하고 통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의논하고 중지를 모아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다.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을때도 교수는 일차적으로 소속학과 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문제성을 최소화 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학과통합에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묵시적인 반대로 받아들여지기 쉬우며,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억지 주장을 펴는 등의 간접적인 비협조 사례가 있었던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로 생각되었다.

무엇보다도 학과 통합에 대한 교수들의 일치 단결된 협조가 절대적인 선결요 소로 생각되었다.

### 3.1.5 후속조치 등의 문제

일단 학과개편이 확정되었다면 이에 따른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뒤따라야 학사운영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과의 통합에 상응하는 새로운 교과과정의 편성, 학칙개정, 복학생들의 경과조치, 교수들의 학과소속 변경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못해서 행정처리나 학사관리에 혼선이 따르고 올바른 학사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

## 3.2. 2단계 추진과정상의 문제

한양대학교를 비롯하여 일부 대학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학과통합문제는 전국의 많은 공과대학에서 학과통합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전국적인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교수들에게도 어느 정도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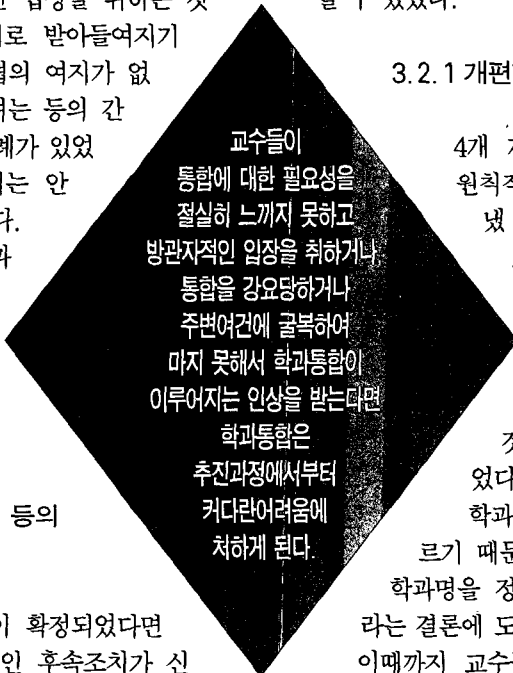
### 3.2.1 개편학과의 명칭

4개 계열학과의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얻어 냈으나 계열별로 2~4개의 학과가 합쳐졌기 때문에 통합된 학과를 대표하는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다.

학과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간단한 학과명을 정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때까지 교수들은 학과통합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속학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관망상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학과의 명칭을 단일 학과명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교수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었다.

또한 교육부의 지침도 학과명칭에 대하여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부득이 표





2와 같이 여러 학과를 나열하는 식으로 “○○학과군”이라고 결정하였다.

### 3.2.2 교과과정 편성

1단계 학과개편 추진과정에서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학과개편후의 교과과정 편성기준에 대한 기준이나 학교방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공과대학은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학과군에 대한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하여 본부의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학과군(부)의 교과과정 편성은 개설학점 190학점 이내, 졸업이수학점 150학점으로 결정 되었으나, 화학공학·공업화학·섬유·세라믹공학과군은 전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설학점을 285학점까지 허용하였다.

### 3.2.3 학생회의 반대

2단계 학과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학부모나 동문회의 반대는 별로 없었으나 공과대학 학생회는 학과통합개편의 방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학생들과 상의하거나 설명이 없었던 이유로 학과개편을 유보하자고 주장하면서, 학부모통신을 이용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대학본관건물을 점거하는 등 농성사태까지 벌어졌다.

공과대학은 학과개편의 배경과 추진과정을 설명하는 서한을 각 가정에 발송하였으며, 학생들을 상대로 공개설명회를 열었다.

농성사태는 공과대학 교수들이 합심하여 비상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학과통합

조치에 지지를 나타내는 한편, 교수들이 학생들을 설득하면서 학생신분으로 점거행동의 부당성을 들어 점거사태를 풀도록 종용하여 학생 스스로 점거농성을 풀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 4. 학부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학과개편을 추진하는 동안에 한양대학교는 여러가지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학부제로 개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 4.1 교수들의 공감대 형성

학과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관련학과 교수들이다.

교수들이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통합을 강요당하거나 주변여건에 굴복하여 마지 못해서 학과통합이 이루어지는 인상을 받는다면 학과통합은 추진과정에서부터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학과에 따라서는 장래에 대한 명암이 엇갈리는 면도 있고, 교수 개인에게는 앞으로 직장에 대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양대의 학과개편 추진과정을 서울대 전기공학부의 경우(공학기술, Vol.1, No.3, 94)와 비교해 보았을때 대학마다 학과통합에 따르는 진통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공감한 반면에 서울대의 경우에는 우리대학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훨씬 많은 노력과 공감대 형성에 심혈을

기울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과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학과통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었다.

교수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통합의지가 확고할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부족할 때는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 4.2 교수들의 소속감 부여

학과개편이 실시된 후에 교수들은 행정처리, 교과과정, 소속학과 및 학과내의 동료의식면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며 새로운 학부와 원래 소속학과 사이에 학과개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앞으로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과도기적인 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소속을 새로운 학부(이하 “학과군”이나 “계열”을 뜻하는 포괄적 명칭으로 부른다)로 재발령 조치를 취하여 학부장(가칭)이 행정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야 혼란을 줄이고 행정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수들이 새로운 학부에 쉽게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4.3 조정기구 설치

이제까지 학과통합의 논의 및 추진을 주로 공과대학 차원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대학본부와의 논의과정에서 대학에서 합의된 학과명칭, 교과과정개편, 졸업이수 및 개설학점, 복학생 등의 문제가 수정되고 반복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적인 낭비와 시행착오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차원이 아닌 대학본부차원에서 통합에 뒤따르는 문제를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4.4 특별지원대책

학과의 통합개편이라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해당학과의 통합에 대한 절실한 요망과 구체적인 사전논의, 충분한 공감대의 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세계적인 학문적 추세나 주변의 환경변화와 국가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학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열에 따라 학과통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거의 문제가 없는 학과도 있으나, 어떤 계열은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학과사정에 따라 공감대형성이 부족하여 통합에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통합의지가 약하여 학과통합의 실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대학의 형편에 따라 학부제를 권장하거나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지원 방안으로 학부에 행정지원(사무직 및 기술직 직원배정), 공간지원(연구실 및 실험공간의 우선배정), 신분보장, 강의책임시간 축소, 대학원 지원 강화 등이 있을 수 있다.

#### 5. 앞으로의 과제

지금까지 3번의 학과개편을 통하여 학부제를 추진해 왔지만 학부제는 이제 시

작단계에 불과할 뿐이다. 학부제가 성공을 거두어 앞으로 대학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예상할 수 있다.

### 5.1 학부제의 추진방향

학부제의 시작은 유사학과의 통합으로부터 출발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연구중심(대학원 중심)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정에서는 학문영역을 단순화하고 21세기를 향한 고도의 과학기술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학의 기초교육을 충실히 하여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중심)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대학이 지향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 5.2 학부의 명칭

현재 대학에 따라 통합학과의 명칭을 “○○학부”, “○○학과군”, “○○계열부”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과의 명칭으로 “○○학과”나 “○○학부”의 2가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과군”이나 “○○계열”이라는 명칭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학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지나치게 길거나 통합된 학과의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학과 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 아직 학과통합의 의지와 통합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놓고 있는 것

이다.

### 5.3 전공설치

학부에 전공을 설치하는 문제는 교육부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1995.3.2 공문)각 대학은 학부제의 운영내규로 전공설치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이전의 학과내 전공분리와 같이 전공선택을 강요하거나 전공별 정원을 두든지 또는 전공을 지나치게 세분화 한다면 학부제 추진의 근본취지를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5.4 학부제와 기존 학과간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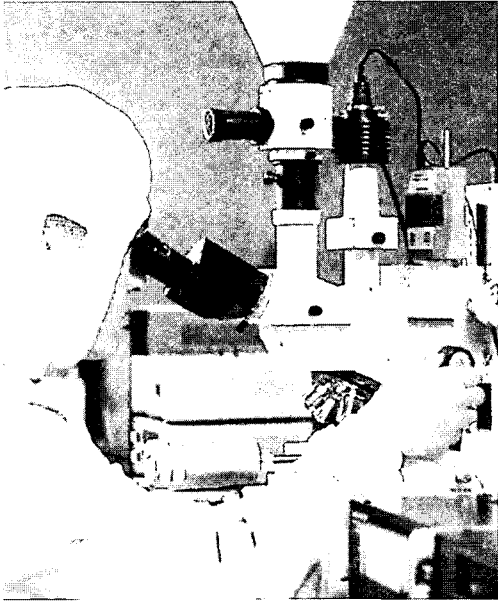
학과통합이 이루어져 학부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학과의 규모(학생, 교수, 예산, 행정사무 등)가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존의 학과는 학부에 비하여 열세의 입장에서 서게 되므로 학과간의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 학과는 학과대로 통합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므로 무리하게 학과통합을 강요하기 보다는 학과의 통합을 살릴 수 있도록 학사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 5.5 대학원과의 관계

지금까지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는 대부분이 대학의 학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어 왔고 실질적으로 대학원에서는 전임교수가 없이 대학의 학과 교수가 대학원에 속해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학부제의 추진목적이 연구중심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앞으로의 대학원은 학과 개편을 통하여 전공분야, 정원조정, 전임교수, 지도교수와 같은 대학원 학사운영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5.6 졸업학점의 조정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은 통합된 학부의 졸업이수학점을 150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존 학과는 140학점 이상을 졸업이수학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단과대학 내의 학과별 졸업이수학점이 다르다는 것은 학과간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졸업이수학점은 동일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5.7 졸업생의 진로

학부제가 궁극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학과명이나 교과과정의 편성면에서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기존 학과의 특성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곧 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사회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학부제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업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5.8 학부제의 부작용

1996학년도부터 학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학부제의 내용을 각 대학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부제의 추진목적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1996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을 볼때 학부제가 전국 대학에 갑자기 확대 도입됨에 따라 무리한 학부제의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많은 학과가 학부제로 통합됨에 따라 이전 학과간의 유사성과 공통적인 요소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제를 유지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부제의 추진이 형식적인 학과통합에 그치지 않도록 이러한 부작용의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